

금남지하상가 '빛의 뮤지엄'으로 재탄생한다

광주 동구, 4월부터 2공구 39개 상가 철거 1500㎡ 확보 예정 미디어아트·메타버스 플랫폼·어린 콘텐츠 등 내년 6월 개관

시민들 발길이 끊겨 쇠락하던 광주시 동구 금남 지하상가가 미디어아트 전시관 '빛의 뮤지엄'으로 재탄생한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 19일 동구청사에서 '빛의 뮤지엄 착수보고회'를 열고 기본 계획과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25일 밝혔다.

빛의 뮤지엄은 유료로 운영되는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이곳에는 제주 '빛의 방', 여수·제주·강릉 '아르떼뮤지엄'과 같이 건물 내부 벽·천장을 통해 미디어아트를 상영,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빛의 뮤지엄은 5·18민주광장의 지하인 금남로 지하상가 2공구 1500여㎡ 공간에 들어선다. 이곳에는 현재 총 39개 상가가 들어서 있는데, 이 중 25개 상가가 공실이며 8개 상가는 참고로만 쓰이는 터라 시민들의 발길이 뜸 끊긴 상태다.

동구청은 오는 4월까지 가벽으로 이뤄진 개별 상가들의 벽을 모두 철거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달 들어 상인 이주 및 보상 절차도 이뤄지고 있다. 동구청은 이들 중 실제 운영중인 12개 상가에 대한 영업보상 및 이주보상비를 제공할 계획이며, 총 2억 1100만원의 보상을 구비로 지급하고, 지하상가 운영 주체인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상인들

을 지하상가 내 다른 상가로 이주할 예정이다.

콘텐츠는 단순히 미디어아트를 상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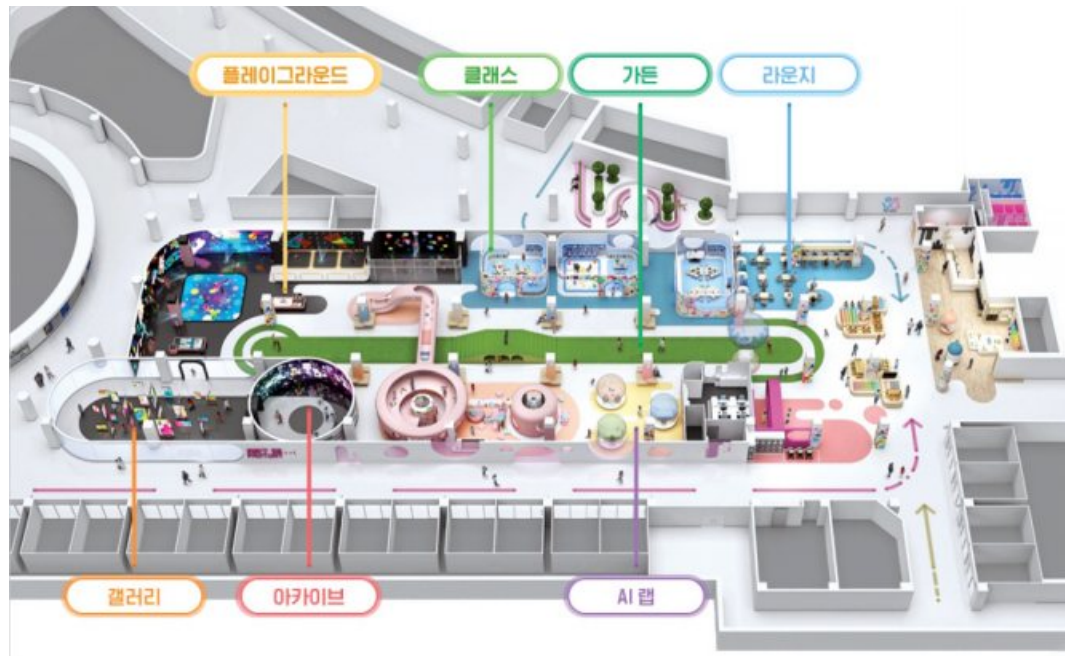
먼저 이곳을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람객들이 미디어아트를 통해 가상 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체험교육·재능개발 등 어린이 콘텐츠를 채워넣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에 대해 미디어아트 속 인공지능이 피드백 해 주는 등 미술·드로잉·교육·미술·치료·동화·제작·가상·갤러리·건축 등 콘텐츠를 구성 중이라고 동구청 관계자는 밝혔다.

동구청은 기본계획 보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실시계획을 짜고 8월부터 공사에 착수, 내년 6월에 개관할 계획이다. 개관 이후에는 설계·시공을 맡았던 시행사가 최소 5년 동안 빛의 뮤지엄을 직접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동구청이 진행 중인 '빛의 로드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5개년 사업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동구청은 총 예산 190억원을 들여 동구 일대에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빛의 뮤지엄 조감도. <광주 동구청 제공>

관광 콘텐츠를 개발, 관람객이 오랜 기간 머물 만한 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동구를 '빛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개장한 '빛의 분수대'를 시작으로 '빛의 읍성', '빛의 뮤지엄', '빛의 거리', '빛의 마당'을 차례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빛의 뮤지엄에는 가장 많은 예산인 86억원이 투입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빛의 뮤지엄은 시내에 있어 접

근성이 좋은 것은 물론 지하 공간이라 날씨 영향을 덜 받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쇠퇴한 금남 지하상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객이 명확한 목적성을 갖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빛의 뮤지엄에 충실하고 재미 있는 콘텐츠, 끊임없이 변화하는 콘텐츠를 채워넣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느 중학교 배정될까 광주 동·서부교육청 27일 발표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를 27일 오전 10시 광주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중학교 입학 배정 대상자는 동부 4370명, 서부 9963명 등 모두 1만4333명이다.

배정은 26일 오후 '나이스 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군별 무작위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정 결과는 27일 재학 중인 해당 초등학교에서 배정 통지서를 학생들에게 교부한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졸업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기준으로 인근 중학교 수용 요건과 통학거리, 버스노선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친절·안전 기사 뽑아요 광주 서구, 12월 18일까지

광주시 서구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기사를 대상으로 시민 평가를 진행해 친절·안전 기사를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구 내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13대, 일반 택시 1087여대, 개인택시 1039대가 평가 대상이며, 평가 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다.

시민들은 버스, 택시 차량 내에 부착된 QR 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해 친절·안전 기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서구는 7월·12월 상·하반기로 나눠 높은 점수를 받은 기사에게 총 1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우수상 3명에게 50만원씩, 장려상 5명에게 30만원씩, 격려상 10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최우수 친절·안전 기사에게는 구청장 표창장도 수여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고 교통이용 불편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며 "승객과 기사 모두 만족하고 서로 배려하는 선진 대중교통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따뜻한 날씨에 미세먼지 질다

GIST 참여 한·미 연구팀, 30년 분석으로 규명

봄·겨울 따뜻한 날씨에 미세먼지 농도를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패턴을 일컫는 '삼한사미' (三寒四微·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의 원전인 '삼한사온' (三寒四溫·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과 연관이 깊다는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참여한 한·미 공동 연구팀은 지난 30여 년간의 계절별 기상 패턴과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를 분석, 날씨와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1988년 이후 30여 년 동안의 중관 기상패턴(1000㎩ 이상 규모의 기상상태) 분류 자료를 분석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고기압성 순환 발달과 북풍 계열 바람을 약화하는 대륙성 온난 기단과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기단은 온난건조한 날씨의 배경이다.

또 저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북풍 계열 바람을 강화하는 대륙성 한랭 기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고기압성 순환 발달 및 대기안정도를 강화하는 대륙성

온난 및 열대 기단과 관계가 있음을 찾아냈다.

대륙성 열대 기단은 대기안정도를 강하게 발달시켜, 매우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도 확인했다. 이 기단은 대륙성 온난 기단보다 더 더운 날씨를 만든다.

윤진호 교수는 "과거 자료 분석을 통해 날씨와 미세먼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했으며, 특정 날씨 패턴이 어떤 이유로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지 확인했다"며 "봄, 겨울철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에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것이 확인돼 날씨 예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GIST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 연구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다솜 선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 서울기술연구원, 전남대, 부경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메릴랜드대학교 등이 공동 연구 주체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대기과학 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인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너무 추잖�~ 한파 특보가 내려진 2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의 얼어붙은 수면 위에 원앙들이 웅기둥기 모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초등생 저녁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행

교육부, 전남 40곳 등 200곳

3월 새 학기부터 전남지역 등 5개 시도 초등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돌봄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을 공모해 전남·인천·대전·경기·경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200개 초등학교로 경기지역에서 80개 학교가

참여하고, 전남과 경북에서 각 40개, 인천과 대전에서는 각 20개 학교가 참여한다.

도시 지역이 많은 전남에서는 약 40개교를 선정, 각각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단일학교 ▲거점 돌봄센터 ▲학교·지역연계 ▲교육청-지자체 연계 ▲지자체 주도 등 5가지 유형을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에듀케어 운영을 위해 에듀케어 교실별로 자원봉사자를 배치

해 학생의 안전을 관리하고,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 인력풀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시범교육청이 아닌 교육청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 돌봄 식·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거점형 돌봄 모델도 선정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절판 판매중

이방인

문이당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